

목자와 문

요한복음 10 장 1 절-10 절

2020 년 5 월 3 일 오전 11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요즘,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미팅도 영상 미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리짓포트 지역에 있는 9 개의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영상으로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화요일 마다. 2 주전에, 감독 비커튼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영상 미팅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것은, 목사들 이름을 하나 하나씩 부르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건삼, 사장처럼 앉아서 인터뷰 하는 것 같다” 고 조크하더라고요. 와우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고요? 대 뉴욕 연회 주재 감독이 내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누가 이름을 알아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우스개 이야기 하나. 교인들이 오백명이 넘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 이름을 다 알수가 없는 것이 참 미안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우들의 이름을 알고 목회를 해야하는 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교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대뜸, “목사님, 제 이름이 뭐지요? 모르시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목사님이 기억을 못하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재치있게 되돌려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 이름을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목자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밝혀 주셨습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에서는, 들에서, 여러 가구가 키우는 양들이 밤에 같이 모여 있는 잠을 자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구마다 양들이 많은 집도 있고, 양들이 적은 집도 있는데, 다 섞어서 울타리에서 자는 거지요. 아침이 되면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양들이 자기 목자를 알고 따라 나간다고 합니다. 양들이 다들 비슷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들이 따라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모습을 연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그가 기르시는 양, 우리 각자, 한사람 한사람을 압니다. 주님께서 제 이름을 아십니다. 이것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름을 안다는 말은, 그냥 이름을 안다는 것 이상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약점이 있는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가릴 것이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허물도 많이 우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의 삶을 변화 시킵니다.

기도 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기도 하실 때,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속사정을 다 밝히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감사히,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기도 하는 그 시간 참 귀하고 귀한 시간이고,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 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통채로 변화를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불안의 기운에 눌러 살고 있습니다. 모두들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도 불안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불안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안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 받지 못해서 불안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10 대가 지나, 20 대 30 대가 되며는 인정 받고 싶은 데 인정 받지 못해서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술마시고, 담배피우고, 마약으로 방탕한 도피 생활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니 더욱 불안해 합니다. 내가 괜찮은가? 제대로 해 놓은 것도 없네. 내 세울만한 것이 없네.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네. 초조 불안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 초조에 우리가 눌러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계신다는 진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배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머리는 알고 있는 데, 진정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약속의 말씀 듣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영원토록 지키리라.” (시편 121:8)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 49:15)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너를 아끼리니 (말라기 3:17) 하셨습니다.

또,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사 49:16)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새겼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격, 너의 모습, 너의 사정, 너의 처지, 너의 죄, 너의 유혹, 너의 약함, 너의 부족, 네가 한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새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바닥에 여러분을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김 춘수 시인의 시 “꽃” 의 첫째 두 마디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풀꽃 제목..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였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세히 보니 예쁘구나. 오래보니 사랑스럽구나. 너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다.”

초청 설교자 전화를 겁니다. 설교 본문은 시편 23 편. 설교 제목;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사무원이, 이게 전부입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일에 교회에 가보았더니 주보에 설교 제목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목자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무엇을 더 필요합니까? 시편 23 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에 보며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울타리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휴식합니다. 안전하게 쉽니다. 평안합니다.

집 안에 들어오면 편하지요? 월튼 집에, 드라이브웨이가 길에서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서, 드라이브웨이에 나무로 만든 문을 걸어 잠금니다. 주로 저녁시간에 제가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신기해요. 저녁에 그 게이트를 닫으면 그렇게 맘이 편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고 평안한 마음이 충만해 와요.

그런데 문은 들어가기만 하지 않고, 나가기도 하는 통로입니다. 뺑 360 도 둘러싸인 울타리에 열린 곳이 어디죠? 문입니다. 그 곳을 통해서 들락 날락 할 수 있습니다. 들락 날락이 없이 들락만 있으면 안됩니다. 날락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와 안식과 평안을 얻기도 하지만,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문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지요? 누가 그런 곳에서 살겠습니까? 그 곳은 감옥이지요.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2 달 가까이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나가야 할 때가 곧 가까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 벽을 쌓고, 담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오랫동안 행하여 온 습관에 젖어서, 자기에게 익숙한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에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자기 생각만이 다 옳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누가 반대를 하며는 화가 납니다. 자기 테두리에 갇혀 있어서, 자기와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언어등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니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그 울타리는, 우리가 갇혀 있는 아픔의 자리가 있습니다. 죄책감에 쌓여 눌러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숨기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닫힌 자리입니다. 배반 당한 경험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쳐 놓은 두껍고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자리입니다.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다”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나와라. 스스로 속박하지 말고 나와라. 스스로 자신을 확대하지 말고 나와라. 갇혀 있지 말고 나와라. 내가 열린 문이다. 나에게로 오너라”

막힌 울타리에 열린 곳, 곧 문은, 인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 머물기만 하지 말고, 상처와 아픔에 눌러 있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당당하고, 힘차게, 사랑하며 살라는 초대입니다.

마틴 레이드. “침묵의 나라로” 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 입니다. 4 마리 개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마리 개는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토끼도 쫓고 다람쥐도 쫓고 신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개는 주인 주변에만 빙빙 돌면서 갑니다. 오랫동안 걸었는데, 이 개는 멀리 떨어지지 않고, 주인 가까이 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친구 왈, “이 개는 오랫동안 작은 개 집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작은 개집에서는 나오기는 했지만, 마음은 아직 그 개장을 가지고 다니고 있네. 개 장이 그의 전 세상이야. 아무리 이 자연이 아름답고 광대해도, 맘대로 나가 돌아다니지 못하네. 신선한 공기 좀 마시라고 데리고 나오는데, 아직도 개 장 주변에만 맴돌고 있다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개처럼, 어디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과거에 받은 상처와 배반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지난 간 시간에 실수와 실책을 계속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죄책감에 눌려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개집을 가지고 다니는 개같은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상처와 후회의 집에서, 계속 맴돌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건삼아, 나오너라. 나가자.”

우리를 둘러싸인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서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가 없습니다. 그 울타리를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문이다. “건삼아, 나와라” 바로 우리는 푸른 초장에 눕게 되고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 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만찬을 함께 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뽕뽕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문이 되시는 주님께, 회복과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